

# 남북,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합의



##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어 종합 스포츠 이벤트 사상 두 번째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과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향후 국제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인으로는 6.15를 비롯, 남과 북에 다 같

이 의미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 동안 남북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여러 차례 공동 입장을 했지만 단일

팀을 구성해 출전하지 않았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 공동입장이 이뤄졌다. 이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같은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도 남북이 나란히 입정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공동 입장에 그쳤다.

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단일팀을 내보냈고, 같은 해 5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도 남북이 함께 팀방울을 흔들었지만 모두 단

일 종목 대회였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을 파견하면 국제 종합 스포츠 이벤트로는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후 두 번째다.

더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 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양한 종목에서 지속적인 체육교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지만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 대표 공연브랜드 키운다

### 올해 총 9억5000만원 투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마당창극 등 대표 공연브랜드를 육성해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총 9억 5000만원을 들여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 및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펼쳐지는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는 △주말 야간상설공연인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 △평일 야간상설공연인 ‘놀부가 떴다 시즌2’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 등으로, 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는 전통문화예술의 보고장인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한국적인 문화자원인 판소리를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총 3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문화재단 상설공연단은 판소리 춘향가 중 변사또 생일잔치’를 중심으로 한 퓨전 창작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해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평일 야간상설공연 ‘놀부가 떴다, 시즌2’의 경우, 놀부전을 소재로 우리 소리와 전통예술을 결합한 마당놀이로, 오는 5월 17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34회에 걸쳐 운영돼 주중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전주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특성들을 반영한 공연으로 주말 상설공연과는 다른 형태인 마당놀이로 대표성을 창출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잡놀이를 현대적인 퍼레이드로 재구성한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도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로 진행한다.

지난 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는 전통연희 퍼레이드는 사회적기업 합곡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영명)이 주관하며, 남천교에서 경기전까지 풍물단, 관광객, 시민들이 누구나 제한 없이 행렬에 참여해 전주의 문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주기잡놀이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연희 퍼레이드에서는 전주기잡놀이의 상징인 5m에 달하는 커란 용 깃발과 시민과 관광객으로 구성된 풍물단의 풍물 연희가 펼쳐지고, 수백 년부터 구전해 내려온 민요 ‘만두레소리’와 ‘달구방이소리’, 깃발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 ‘최고의 국악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6월 15일 개막

국내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인 2018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위원장 송재영, 이하 조직위)는 제4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3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대회를 요강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준비의 막을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조직위는 최근 문화관광체육부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장원대통령상 복원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임원회의와 위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2018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요강을 확정하는 등 올해 전국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조직위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정통성과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회를 단오를 기점으로 한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을 일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경연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경연 참가를 원하는 참가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 홈페이지(www.jkss.or.kr)의 모집요강을 참고해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보존회에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전국대회에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며, 판소리명창부 본선에 적용되는 청중평가단은 판소리 전공자, 애호가 등 100명으로 구성



2018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대사습놀이 현장.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서 펼쳐져 조직위, 전국대회 준비 착수**

**‘전통의 으뜸을 펼치다’ 주제 축하공연 등 기획공연 열여**

**판소리신인부 부대행사 운영**

운영할 예정이다. 청중평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존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보존회에 접수하면 된다.

경연과 함께 국악대축제로서의 공연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

국대회는 오는 6월 15일 저녁 풍남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행사와 함께, ‘전통의 으뜸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명실상부 국악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의 명인·명창 무대로 문을 연다.

둘째 날에는 기획초청공연으로 풍남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국악인들과 더불어 전통의 새로움을 더하고 있는 공연팀 등의 무대 ‘전통의 미래를 펼치다’를 준비하고 있으며, 셋째 날에는 국악의 현재를 조명하는 ‘전통의 역사를 펼치다’라는 주제로 국악관련학 공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거리공연은 △무용

단체의 거리퍼포먼스 △젊은 국악인들의 산조한바탕 무대 △국악버싱킹 △신인판소리 및 초동판소리 예비명창 무대 등이 진행되고, 태조로 한옥마을 습타에서는 장구, 판소리, 상모와 버나를 체험할 수는 장소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취타대 행렬을 준비해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대사습놀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한 최고 국악인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전국대회 기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만의 유일하고도 독보적인 문화자산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재미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